

2026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록 요약

- ▶ 개최일시 : 2026년 9월 28일(월) 11시 00분 ~ 12시 00분
- ▶ 장 소 : 제물포구한마음종합복지관 3층 허브홀
- ▶ 참 석 자 : 위원장: 이민희
위 원: 강새롬, 김관택, 권현진, 백영경, 전용숙, 조영자, 허형철
간 사: 조경연
간사외: 문선민, 김형준
- ▶ 주요 회의 내용
 - 보고안건
제1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_복지관
제2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주간이용
 - 심의안건
제1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복지관
제2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주간이용
제3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복지관
제4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주간이용
제5호. 수급자 이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_주간이용
제6호. 4분기 신규 및 중점사업_복지관
제7호. 4분기 중점사업_주간이용

2026년 제3차 운영위원회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11:00 ~ 12:00	장소	제물포구한마음종합복지관
참석자	▶ 위원장: 이민희 ▶ 위원: 강새롬, 김관택, 권현진, 백영경, 전용숙, 조영자, 허형철 ▶ 간사 및 그 외 인원: 조경연, 문선민, 김형준		

회의내용

1. 회의 진행 경과

- 가. 성원보고
- 나. 개회선언 및 인사말
- 다. 전차회의록 보고
- 라. 보고안건

제1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_복지관

제2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주간이용

마. 심의안건

제1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복지관

제2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주간이용

제3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복지관

제4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주간이용

제5호. 수급자 이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_주간이용

제6호. 4분기 신규 및 중점사업_복지관

제7호. 4분기 중점사업_주간이용

바. 폐회

2. 회의 결과

가. 성원보고

- 운영위원 8명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따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나. 개회선언 및 인사말

- 이민희 위원장이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하반기 남은 일정과 기관 운영에 대한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의견 제시를 요청함. 이후 간사에게 전차 회의록 보고를 요청함.

다. 전차 회의록 낭독

- 조경연 간사가 전차 회의내용에 대해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및 당시 논의사항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함. 별도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전차 회의록 보고를 마침.

라. 보고안건

이민희 위원장이 제1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_복지관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다.

- 조경연 간사가 회의 자료를 토대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_복지관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예산서의 세입·세출 반영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이민희 위원장이 공동모금회 우수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지원금 확보 경위와 직원 포상 관련 활용, 기능보강사업 선정 및 동행 상점 연계 사업 추진 내용을 추가 설명함. 특히 동행 상점 연계 사업은 지역 내 상점과 협약하여 장애인이 복지관 내부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을 설명함. 해당 사업을 통해 독거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질의가 있는지 확인함.
- 추가 질의가 제시되지 않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감.

이민희 위원장이 제2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주간이용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제2호.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_주간이용 안건에 대해 회의자료를 토대로 보고함.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질의가 있는지 확인함.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의견을 묻고, 추가 의견이 없어 다음 안건으로 상정함.

마. 심의안건

이민희 위원장이 제1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복지관을 상정하다.

- 조경연 간사가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1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복지관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사업평가에 대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함.
- 김관택 위원이 술런 스포츠 대회 참가 시 다른 기관 참가자들이 단체 유니폼을 착용한 것에 비해 복지관 참가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의견을 제시함.
- 이민희 위원장이 분홍색 유니폼이 있으나 챙기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향후 대회 참가 시 해당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 허형철 위원이 지역사회 내 신규 이용인 발굴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에게 복지관 이용을 권유하고 추천해도 되는지 질의함.
- 이민희 위원장이 지역 주민들의 추천과 권유를 환영하며, 신규 이용인 발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전용숙 위원은 장애인 날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하던 행사를 위탁기관별 자율 운영 방식으로 변경한 배경을 설명함. 노인의 날 행사의 경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비해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전용숙 위원이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두 기관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보다는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차별화된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장애인의 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 이민희 위원장이 행사에 참여한 팀장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걷기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설명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도 참여하였으며, 행사 참여 인원이 약 400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함.
- 이민희 위원장이 장애인의 날 행사 공동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 간 공동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각 기관이 장애인 주관을 활용하여 자체 예산으로 개별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인천시 차원에서도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별도의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노인의 날 행사 운영 방식과 같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제안함.
- 전용숙 위원이 노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의 날 행사는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노인의 날 행사의 경우 예산과 관심이 특정 행사에 집중되는 것보다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축소하거나 진행하지 않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반면,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이민희 위원장이 장애 당사자인 허형철 위원에게 당사자 위원으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의함. 특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걷기대회가 아닌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함.
- 허형철 위원은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함. 해당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는 행사인지 잘 알지 못했으며, 관련 정보나 홍보를 접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또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행사와 관련해서도 별도로 참석을 안내받은 경험은 없다고 밝힘.
- 전용숙 위원이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주로 기존 이용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또한 복지관 이용에 심리적·물리적 접근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주민들도 있어, 매년 걷기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참여 대상이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허형철 위원이 해당 행사 장소를 직접 방문한 경험은 없으나, 행사 장소의 위치와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행사 장소가 경사진 곳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장소를 찾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함. 과거 봉사활동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장소를 잘못 찾아 안내 문자를 받고 이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행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소 안내와 접근성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전용숙 위원이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주민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이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행사 운영 방식과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추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힘.
- 허형철 위원이 현재 논의 중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2회 참여하였으며 다른 행사와 착각하였

음을 밝힘.

- 이민희 위원장이 행사가 어땠는지 지속적으로 필요할지 물음.
- 과거 해당 행사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는 행사 참여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설명함. 행사에 참여하여 시원하게 관람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다고 밝힘.
- 권현진 위원이 노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묻다.
- 정용숙 위원이 기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보다 풍성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임을 말하다.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추가 의견이 없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이민희 위원장이 제2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주간이용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1호. 제2호. 2026년 상반기 사업평가_주간이용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
- 이민희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의견이 있는지 재차 묻고, 의견이 없어 다음 안건을 상정함.

이민희 위원장이 제3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복지관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다.

- 조경연 간사가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3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복지관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물음.
- 이민희 위원장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운영 규정 전반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당초 2분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하여 진행했어야 하나, 일정이 지연되어 3분기에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사업평가 과정에서 규정 및 안내문 등에 사용되는 일부 용어의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위원의 자문 의견이 있어, 이번 규정 개정 시 관련 용어도 함께 검토하고 변경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용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 복지관 안내문에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하여, 기존 안내문에 기재된 “궁금한 사항은 선생님께 여쭙보세요”라는 표현이 일부 이용자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졌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함.
- 또한 인권 중심 및 사람 중심의 관점에 따라 기존의 ‘이용자’를 ‘이용인’으로, ‘장애인’을 ‘당사자’로 변경하는 등 대상자를 수동적인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표현하기보다 능동적인 주체로 존중하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이에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규정 및 안내문 전반의 용어를 검토하고, 이용인의 관점과 인권을 고려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 권현진 위원은 운영 규정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안내문이 아니라 복지관의 운영과 제도를 규정하는 문서이므로, 용어 변경 시 문서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특히 ‘제공’을 ‘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의미가 달라지거나 해석상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복지관 서비스와 관련된 운영 규정에서는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힘.

- 아울러 홍보 문구나 안내문과 운영 규정은 용어 사용의 목적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다른 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확인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민희 위원장이 용어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함. 평가위원이 특정 용어 하나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전반적인 용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기관 내 조직문화와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을 설명함.
- 권현진 위원이 장애인 분야의 용어가 시대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변화해 온 점을 언급하며, 용어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변경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과거 사용하던 표현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사용되는 사례와 발달장애 관련 용어의 변화 등을 언급하며, 용어를 개선하더라도 기관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기보다는 당사자의 의견과 사회적 공감대, 관련 용어의 사용 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사람 중심의 관점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운영 규정 내 용어 변경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함. 이에 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관련 용어 변경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점검 후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 명칭 변경 사항만 우선 반영하기로 함.
- 아울러 실종아동 보호 관련 사항은 법적 의무에 따라 운영 규정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으로 추가된 사항임을 설명함.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용어 변경 사항을 제외한 복지관 명칭 변경 및 관련 운영 규정 변경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정리함.

이민희 위원장이 제4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주간이용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4호. 2026년 운영규정 변경(안)_주간이용를 설명하다.
- 이민희 위원장이 주간이용시설 운영 규정은 기존 주간이용시설협회에서 마련한 초기 규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 협회에서 표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고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표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여비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하여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추가 의견이 없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이민희 위원장이 제5호. 수급자 이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_주간이용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5호. 수급자 이용료 감면 요율 변경(안)_주간이용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주간이용시설 운영 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기준의 변경 배경을 설명함. 기존에는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에는 수급자 중 약 30% 정도가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함.
- 2022년 구의 요청에 따라 이용료 감면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후 해당 기준에 따라 운

영해 왔다고 설명함. 그러나 2024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급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힘.

- 또한 기존에는 동구 거주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용 대상자를 고려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함.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에 따라 수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수급 자격 기준에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함.
- 2028년에는 이용인 전원이 만 31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 기준 변화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또한 타 기관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수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용인 12명 중 11명이 수급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설명함.
-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협의하여 이용료 조정 및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용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민간 주간이용시설의 경우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져 운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중앙협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2028년 개인예산제 시행 시 개인예산을 활용하여 주간이용시설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함. 다만 개인예산제 시행 시기가 2028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전인 2027년의 이용료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결론적으로 2027년에도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해당 팀장이 이용인 부모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기관 운영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배려해 준 결과 수급자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방안에 동의하였다고 설명함.
- 다만 해당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밝히며, 위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함.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이용료 감면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수구청 및 영종구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해당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연락을 받았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용료 관련 사항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기관에 의견을 문의하는 등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권현진 위원이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서로 상황을 살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이용인 전원이 변경안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일부 이용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에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해당 안건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관련 내용을 안건에 포함하였으며, 개별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이용인의 어머니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으로만 안내를 받다 보니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임. 이에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충분히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민희 위원장이 해당 이용인의 어머니가 간담회에 자주 참석하지 않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이용인은 셔틀을 통해 자택 앞에서 모여 오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현재 담당 팀장이 지속적으로 전화 연락을 하고 직접 만

나 뵙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수급자가 6명인 민간기관에 운영 상황을 문의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는 외부활동이나 간식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함.
- 조영자 위원이 이용료 부담이 있더라도 이용인들이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가정에 머무를 경우 외부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용인의 일상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함. 이에 이용료를 단순한 비용 부담으로 보기보다는 이용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민희 위원장이 수급자가 6명인 민간기관의 경우 이용인과 함께 산책하는 활동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어 관련 상황이 달라질 경우 다시 방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함.
- 조영자 위원이 이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이용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수급자에 해당하더라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권현진 위원이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이용료가 감면되는지 묻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현재 기관 내 차상위계층 이용인은 없으며,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차상위계층에서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현재 수급자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운영위원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용인 전원이 찬성하였다면 더욱 감사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함.
- 김관택 위원이 찬반 의사 확인이 거수로 진행되었는지 질의함.
- 이민희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 조영자 위원이 이용료 감면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보호자들이 관련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승인 되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다.

이민희 위원장이 제6호. 4분기 신규 및 중점사업_복지관을 심의안건 및 제7호. 4분기 중점사업_주간이용을 상정하다.

- 조경연 간사가 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6호. 4분기 신규 및 중점사업_복지관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시간 관계상 제7호. 4분기 중점사업_주간이용 안건을 연이어 설명할 것을 요청하다.
- 김형준 주간이용시설 팀장이 회의자료를 토대로 제7호. 4분기 중점사업_주간이용 안건을 설명함.
- 이민희 위원장이 신규 및 중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운영위원들에게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 별도의 의견이 없어 질의가 없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안내하고 감사를 표함.

- 이어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참석한 전용숙 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그동안 운영위원회에 해당과 팀장이 참석해 왔으나 과장이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처음 참석한 소감을 요청함.
- 전용숙 과장이 다른 기관의 운영위원회에는 직접 참석해 왔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팀장이 참석해 온 관계로 이번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또한 현재 복지 분야의 관심과 정책이 노인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다만, 관련 내용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여 마련한 것인 만큼 그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함.
- 이민희 위원장이 추가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고, 추가 의견이 없어 **2026년 제3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